

	독 일 (프 랑 크 푸 르 트) 사 무 소 해 외 동 향 보 고 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4. 4.

CEPA Insight

- EU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에 대응한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점검 필요
- MS의 독일 투자 사례를 참고, 도내 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책 검토

① EU 공급망 실사지침'(CSDDD) 유럽의회 최종 통과

- 기업에 인권·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'지속 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'(CSDDD)이 유럽의회에서 최종 가결(4.24. / 찬성 374, 반대 235)
 - 최종법안 적용 대상기업은 약 5천개 사, 기존 합의안 대비 70% 가량 축소*
 - * 연 매출 기준 당초 1.5억 → 4.5억 유로 완화, 공급망 범위에서 폐기 부분 제외 등
- EU 역내·외 소재 기업으로 분류,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(모기업)에 적용
 - (유럽) 직원 수 1천 명 이상, 전 세계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이상
 - (역외)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유럽연합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이상
- 해당 기업들은 공급망 내 인권·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, 예방·완화·제거 조치 등을 이행하고 매년 실사 준수 내용 공시
 - 2029년부터 실사내용 공시, 규정 위반 시 연 매출액의 최소 5% 과징금 부과
 -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3~5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

※ 출처 : Forbs (<https://www.forbes.com/sites/jonmcgowan/2024/04/24/european-parliament-approves-corporate-sustainability-due-diligence-law/?sh=42f8867f6855>)

② 기독교민주당(제1야당), 이슬람 관련 정당 강령 수정안 재조정 작업

- 기민당은 현재의 정당 강령에 정의된 이슬람 신자 관련 표현은 이슬람 사회 전체를 일반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, 동 문장을 수정할 예정
 - (현재) 독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슬람교 신자들(muslims)은 독일 국민이다
 - (수정) 독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독일의 자유 사회를 거부하는 이슬람교 신자(a muslim)는 독일 국민이 아니다
- 또한, 기민당은 사회정책에서 주도적 문화(Leitkultur)*에 대한 신념을 견지할 예정
 - * 유럽 가치에 기반하여 이민자들은 독일 사회와 주도적 문화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정치학 개념

※ 출처 : Tagesschau
(<https://www.tagesschau.de/inland/gesellschaft/cdu-grundsatzprogramm-muslims-100.html>)

③ 솔츠 총리, 중국 방문

- 솔츠 총리는 4.14.~16, 중국을 방문해 독-중 경제자문위원회 회의 등 수행
 - ※ 환경부·농업부·디지털교통부장관 및 독일 기업 12개社 대표 동행
- 일정 중 시진핑 주석 및 리창 총리와 우크라이나 전쟁, 경제 교역 등 논의
 - (우크라이나 전쟁) 중국이 푸틴이 전쟁을 중단하도록 영향력 행사 요청, 중국의 대러 이중 용도 품목 이전 문제 등 중점 논의
 - (대중국 경제관계) 독일의 중국 디커플링 미희망 의사 재확인, 중국의 일방적 경제 정책으로 인한 유럽 기업의 어려움과 공정한 경쟁 강조
- 양국 유관 부처 간 농림·교통·환경 분야 협력 문서 채택
 - △독일산 사과 수입 재개 △독일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관련 무역 제한 조치 해제 △자율 및 네트워크 주행 분야 대화 및 협력에 관한 공동 의향서 △순환경제 및 자원효율에 관한 전략 대화를 위한 행동 계획
- 솔츠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최대 관심사인 러-우 사태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중국의 과잉 생산력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
 - ※ 출처 : Handelsblatt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politik/international/kanzler-in-peking-wo-scholz-frieden-wollte-und-nur-aepfel-bekam/100032924.html>)

④ 스타트업 불칸 에너지(Vulcan Energy), 독일 최초로 리튬 생산

- 독일-호주 스타트업 불칸 에너지는 독일 란다우에서 리튬 추출 최적화 공장을 가동해 소규모 생산 돌입하고 프랑크푸르트 자매공장 상량식 개최(4.9.)
 - 여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
- 모레노 대표는 리튬과 같은 원자재가 에너지 전환에 기본이 되는 만큼 자체 공급망 확보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
 - 리튬 추출 최적화 공정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 친환경적인 점 강조
- 불칸 에너지는 폭스바겐, 스텔란티스, 르노, LG에너지솔루션* 등과 장기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

* '22년 1월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 체결, '25.~'29, 5년간 4만5천톤 공급받을 예정

※ 출처 : Handelsblatt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unternehmen/energie/energie-ende-vulcan-energy-produziert-erstmal-lithium-in-deutschland/100031168.html>)

⑤ 독일 주요기업의 AI 혁신전략, 지난 해 이후 급속도로 현실화

- '23. 6월 한 설문에 따르면, 미국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한지 7개월 만에 64% 이상의 독일 기업에서 AI 도입 개시, 산업전반에 빠르게 도입 중
- 주요 기업의 단계별 AI 적용 범주는 다르며, 현재 지멘스가 선도

(1단계) DZ은행, 데카(Deka), DHL

- 내부 정보를 제외한 챗봇으로 AI를 시험적으로 허용

(2단계) 에온(E-on), 머크(Merck), 클라나(Klarna), 오토(Otto)

- 내부 정보를 AI 모델과 접목하여 활용, 주간 노동시간 30분 가량 절약

(3단계) 지멘스(Siemens), 셰플러(Schaeffler)

- 프로세스 자동화를 포함하여 업무의 80% 수행

- 3단계 성공 여부에 따라 기업구조에 큰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
 - 특히, 기계 전문 프로그래머, 엔지니어 등 과거 AI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던 직군까지 대체 가능할 것으로 분석

※ 출처 : Handelsblatt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technik/ki/unternehmens-gpts-wann-sich-firmeneigene-ki-und-chatbots-wirklich-lohnen/100031616.html>)

⑥ 마이크로소프트(MS), 독일 NRW 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

- MS사는 '25년 말까지 독일의 AI 부문에 30억 유로 이상 투자 예정
 - 데이터 센터 건설 및 약 120만 명의 독일 시민을 대상으로 AI 교육 계획
- 데이터센터는 NRW(Land Nordrhein-Westfalen) 주 내 광업 분야 소도시인 베르크하임(Bergheim)과 베트부르크(Bedburg)에 건설될 예정으로
 -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사라질 1만 5천 여개의 일자리 중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,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 - 아울러, NRW 주에서만 약 1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AI 교육을 받게 되어 데이터 센터와 주민의 공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※ 출처 : Handelsblatt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technik/it-internet/kipu-quantum-dieses-start-up-will-die-quantencomputer-nutzung-erleichtern/100018750.html>)